

새 전남도당 위원장 이개호 의원 만장일치 선출

도당 정기대의원대회... 8월 16일 화순 하니움스포츠센터



이개호 도당 위원장이 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도당 위원장에 추대된 뒤 이낙연 전남지사, 이형석 광주시장 위원장,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이개호(58,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위원장 직무대리가 새 도당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전남도당은 지난 8월 16일 화순 하니움스포츠센터에서 '전남도당 제2차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열고 도당 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이개호 위원장을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도당 위원장으로 재선출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이날 688명 중 5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당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대회 의장에 선출된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의 사회로 도당 위원장에 추대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한 더민주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 위원장은 이날 수락연설을 통해 "가장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켜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께서 보내주신 준엄한 때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달라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며 "반드시 당을 살려내고 호남의 미래를 살려내고 정권교체를 이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주권을 실현하고 모든 당무는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정치 및 지역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며 향후 도당 운영 포부를 제시했다.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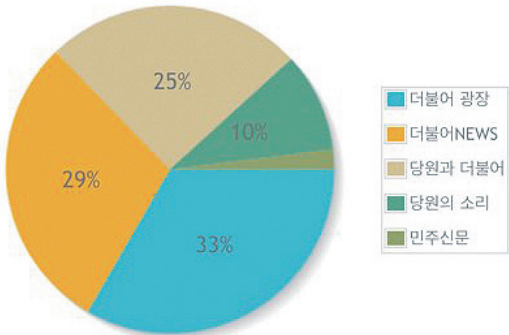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보가 이번 호부터 제호를 '더불어 광장'으로 전환합니다.

새로운 제호 '더불어 광장'은 이개호 도당 위원장이 천명한 '지역위원회 활성화', '당원주권과 민생·생활정치 확립'의 도당 운영 비전 실천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에 앞서 도당은 당원들을 상대로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도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당보 제호에 대한 당원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총 712명에 설문에 참여, 235명이 '더불어 광장'을, 207명은 '더불어 NEWS', 이어 178명이 '당원과 더불어'를 제안하였습니다. 또 '당원과 더불어', '민주신문' 등의 제호도 각각 71명과 21명의 당원들이 선택하였습니다.

도당은 '더불어 광장'을 통해 당원들과 더욱 친근하게 소통하고 가까이 다가서고자 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 그리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ummary

Input	# Responses
더불어 광장	235
더불어 NEWS	207
당원과 더불어	178
당원의 소리	71
민주신문	21

총 투표자 합계 : 712 명

도당, '故 백남기 농민 분향소' 설치 및 합동분향 실시

9월 28일 남악 중앙공원 광장

전남도당은 지난달 28일 남악 중앙공원 광장에 '고 백남기 농민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도당 상무위원, 당직자 합동 추모식과 분향을 실시했다.

추모식에는 이개호 도당 위원장과 김종현(목포)·박병열(여수) 지역위원장, 문행주 도의회 더민주 원내대표, 임용수 도당 수석대변인, 나주시의회 김판근 의장, 오병현 사무처장과 당직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당원을 대표해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는 헌화, 분향을 했으며 문행주 도의원(도의회 원내대표)와 보성출신 선형수 전 민주당 인권위 부위원장이 추모사·조사를 각각 낭독했다.

추모사를 한 문행주 도의원은 "정부는 사고 발생 후 사망까지 317일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유족에게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생존권 투쟁에 나선 무고한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 관련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도당은 당초 7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예정보다 이틀 앞당긴 지난 5일 분향소 운영을 마감하고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등 규탄 전남투쟁본부'와 연대해 특검 서명운동 등에 참여키로 했다.



도당은 지난달 28일 남악 중앙공원 광장에 '고 백남기 농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개호 위원장, 도당 상무위원, 당직자 등이 합동 분향을 실시했다.



더불어 광장 2016. 10. 17 (제16호)

발행인 | 이개호 편집인 | 홍지영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무안 라-0002호 기타간행물 월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403호

TEL : 061-287-1219 FAX : 061-287-0415

인/터/뷰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



당원주권 확립, 생활정치 확립에 최선 다하겠다

정권교체 위해 민생문제 등 근본적인 변화 추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당의 모든 결정을 당원이 할 수 있도록 당원주권을 확립하고 생활정치, 민생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월 16일 화순 하니움 스포츠센터 적벽홀에서 열린 더민주 전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도당 위원장 추대 수락연설을 통해 “4·13총선에서 호남민심은 정권교체를 넘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도당의 새로운 운영비전으

로 가장 먼저 절박한 민생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강한 실천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도당을 바꾸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물 개방으로 지어볼 농사가 없는 농민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들, 장사가 어려워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세상인들, 빈곤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모두 함께 뛰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전남은 김대중 대통령

과 노무현 대통령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전진기지였다”며 “호남민심의 분노와 비난을 회피하지 않고 뼈를 깎는 자세로 당을 혁신하여 호남민심이 되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활성화, 문턱 없는 도당 사무처 공간 개방, 생활정치 활성화 등을 통해 도당 운영을 혁신하여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전남도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도당 상무위원회, 송대수 선관위원장 선출

<여수읍 지역위원장>

선관위에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등 12명,
운영위원회에 이장석 도의회 부의장 등 9명 호선

전남도당은 지난달 28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6차 상무위원회(의장 이개호 도당 위원장)를 개최하고 송대수 여수갑지역위원장

을 도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장석 도의회 부의장과 문행주 도의회 원내대표 등 9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했다.

이개호 위원장 주재로 열린 6차 상무위원회는 김종현(목포)·박병렬(여수읍) 지역위원장, 임용수·김연일·문행주 도의원과 김판근 나주시의회 의장 등 30여명의 상무위원이 참석했다.

상무위는 이날 이장석 도의회 부의장과 문행주 원내대표 등 9명의 상무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의해서·도당 상무위에서 추천하도록 한 2명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는 이동복 나주시의원

과 최성자 고흥군의회원을 각각 추천했다.

예산결산위원으로는 박철홍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문영길 세무사 등 9명을, 도당 선관위원장에는 송대수 여수갑지역위원장, 선관위에는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등 12명을 각각 선출했다.

도당 선관위는 앞으로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되는 도당 산하 여성·청년·노인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재·보선 등의 선거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도당, 정무직·각급 위원회 위원장 당직개편

이낙연 전남지사, 김영록 전 의원 등 5명 상임고문 추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지난 10일 제1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김영록·신정훈·김승남·신문식 전 의원 등 5명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했다.

또 이완식 전 도의회 의장, 이길선 전 나주시의회 의장 등 20명을 고문으로, 김종현(목포)·송대수(여수갑)·박병렬(여수읍)·조충훈(순천)·김재무(광양·곡성·구례)·박병중(고흥·보성·장흥·강진)·서삼석(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을 상임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는 등 도당 정무직 및 상설위원회 등의 당직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

더민주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장석 도의회 부의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열린 도당 운영위는 이날 이경미 도의원(여수)과 김종대 전 도의원(광양), 박래옥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 수석 부위원장 등 각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 24명을 도당 부위원장으로 인준했다.

또 각급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직능위원장에 임현호 순천시 테니스협회장, 디지털소

통위원장에 조요한 목포시의원 등을 각각 선출했다.

◇상임고문 : 이낙연 전남도지사, 김영록·신정훈·김승남·신문식 전 의원

◇고문(20명) : 이완식·정준호·이길선·정완기·박노신·윤재중·한상옥·김병기·이귀남·김학실·김영풍·박봉길·이동현·주용조·김규태·이안실·주태호·임준모·고재우·김정담

◇상임부위원장(7명) : 김종현·송대수·박병렬·조충훈·김재무·박병중·서삼석

◇부위원장(24명) : 최홍림·이경미·김병권·서정진·최종석·김태룡·김종대·김종국·최동식·정금연·박래옥·이종운·김재남·최성자·서근석·사순문·고영민·김철우·김철호·박명규·김성호·조정기·이동진·정광호

◇각급 위원회 위원장 : 임현호(직능위원장), 김형근(지방자치위원장), 김병덕 교육연수위원장, 김판수(다문화위원장), 조요한(디지털소통위원장)

◇도당 위원장 지명 상무위원 : 김종현·박병렬·이광일·박옥희·장세선

오병현 신임 사무처장 취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에 오병현(53·사진) 경기도당 사무처장이 9월 19일자로 취임했다.

오병현 신임 사무처장은 장성출신으로 지난 1993년 구 민주당 정치연수원 연수부장으로 입당 후 중앙당 조직국장을 거쳐 광주시당·서울시당·경기도당 사



무처장 등 당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오 신임 처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수권능력을 기르고, 호남 민심을 되찾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의료서비스”와 “환자안전” 우수성 공식인정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 내과 | 정형외과 | 일반외과 | 재활의학과 | 한방과

CEO 오하군

전문화된 진료

- 전문의 진료
- 양 · 한방 협진
- 전문재활치료센터
- 개방형 치매병동
- 집중치료실

입원대상

- 노인성 만성질환
- 치매 · 파킨슨병
- 뇌출혈 · 뇌경색
- 암환자 요양
- 전문재활치료

의료법인 진촌의료재단
순천만병원 재활 요양

순천시 별량면 덕정길 74
☎ (061) 749-9000

국회 농해수위 전남도 국감 쟁점

새누리당 불참 속 쌀값하락, 친환경 농업 등 집중질의 마을공동급식, 숲속의 전남 만들기 등 역점 사업 도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영춘)는 지난달 30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농도(農道) 전남의 쌀값 하락과 친환경 농업정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이번 국감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야당의원 8명만 참석한 가운데 다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열렸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도당 위원장) 의원은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급식사업이 농촌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사

업 참여를 신청한 마을 가운데 절반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다”며 사업비 지원 확대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사업비 부담비율도 도비 30%, 시·군비 70%로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며 “도 부담비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사업추진 방식개선을 요구했다.

또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 사업을 국가지원사업으로 만들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

과 공동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은 “전남도가 최근 수확기를 맞아 쌀 제값 받기 대책을 내놨지만 쌀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단기적으로 관리비용이 가장 저렴한 결식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용 쌀을 공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남의 경우 전체 28개 RPC 가운데 17개소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RPC들이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전남 쌀이 저가공급 경쟁에 휘말려 쌀 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지사는 “쌀값 대책의 경우 전남 쌀은 '저가 미(米)'라는 근거 없는 평판 등으로 전국 평균 쌀값보다 더 폭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난립해 있는 전남 쌀 브랜드를 통합하고 인식제고를 통해 쌀값 하락 대책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성명

여수시의회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
국민의당은 공개 사과하고
진상조사 실시하라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돈거래 의혹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던 여수시의회 소속 여성 시의원이 성추행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것도 백주대낮에 공무원과 일반 방청객이 지켜보고 있던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소속 남성의원들에 의해 28일 벌어진 일이다. 차마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다.

더민주 소속 여수시의원 8명은 이날 국민의당 박정채 의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의장의 회 의진행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정옥기 의원 등이 더민주 소속 여성의원 1명을 뒤에서 꺼안고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추태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여성 의원은 충격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과도한 신체접촉과 물리력을 행사한 정옥기 의원 등 4명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즉각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성추행 추태에 가담한 소속 시의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돈거래 의혹으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박정채 의장의 공개사과와 사법당국의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

2016. 9. 29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국민의당 여수시의원들, 여성의원 폭행·성추행 파문 확산 여성 지방의원 및 여성·시민단체 규탄집회 등 잇따라

여수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여성의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와 동료 여성 지방의원들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시위에 잇따라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낮 12시 우리 당 전남여성지방의원협의회 소속 여성의원들과 여성 당직자 등 30여명은 여수시의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성추행 및 후반기 의장선거 금품매수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경미·강정희 도의원, 김유화 여수시의원 등 30여명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의 여성의원 추행과 폭행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의당의 공식 사과와 가담 의원 일벌백계 등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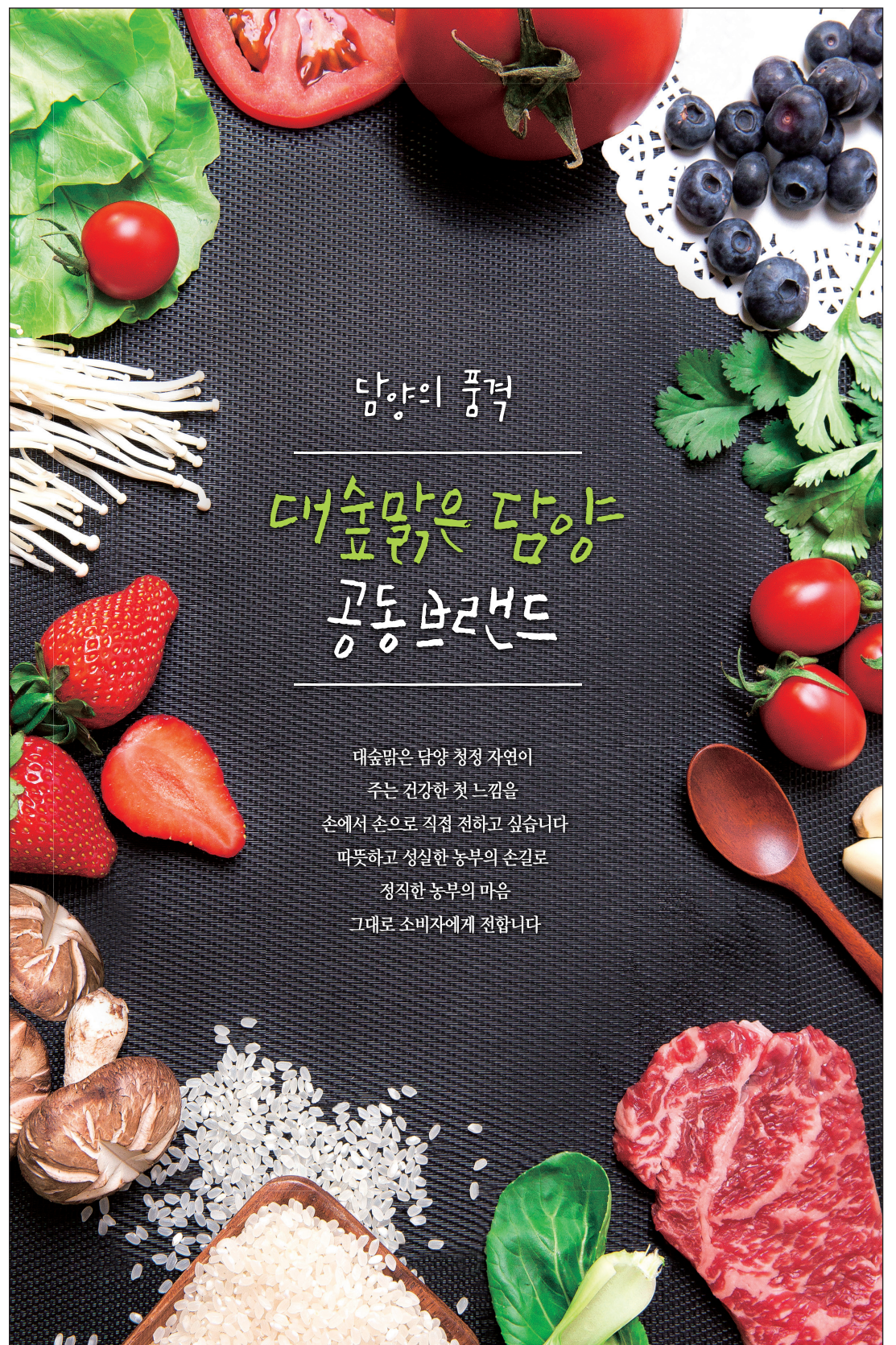
피해를 당한 더민주 박모 의원(여)은 지난 달 28일 국민의당 박정채 의장의 '의장선거

시의원 매수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과 공개사과를 요구하던 중 국민의당 의원들에 의해 폭행과 성추행을 당해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을 못한 채 입원, 치료중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정모의원 등 4명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여수지역 여성단체 회원 30여명은 4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사)여수시민협의회 시정지기단은 5일 "시의회 임시회는 불통·불산·불능으로 정치인에 대한 비난만 키운 '3불 의회'였으며, 이런 파행은 후반기 의회 시작부터 예견됐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이날 171회 시의회 임시회(9월 23일~30일) 평가모임을 갖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 금품매수 의혹과 성추행 의혹 등은 의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줘 반쪽의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도의회 309회 임시회 도정질문 쟁점

호남고속철·무안공항 활성화, 청년인구 유입책 등 집중 거론 이낙연 지사, “무안공항 광주 군공항과 통합 반대” 입장 밝혀



정영덕 의원



우승희 의원



문행주 의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청년인구 유입대책 등 전남의 주요 현안사업이 제309회 도의회 임시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1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도청과 도교육청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2016행정사무감사 계획, 조례안 등 총 6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우리 당 정영덕 의원(보전복지환경위원회·무안)은 지난 5일 도정질문에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무안공항 경유 노선 확정 및 공항 활성화 대책 등 지지부진한 SOC 사업의 진행 상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지사는 “지난 2015년 7월 전남도와 정부 사이에 이견이 없는 광주송정-나주-고막원 구간을 우선 착수하기로 합의해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 착공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과거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광주 군 공항 이전 이유 중 하나가 민간공항과 함께 있다는 것인데,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선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시·군간 협력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광주시와 상생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무안공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승희(영암) 의원은 “전남도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도정 목표로 정했는데도, 오히려 청년 인구는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청년인구 유입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문행주 의원(화순)은 지난 6일 도정질문을 통해 이낙연 지사에게 경기도의 사례를 들어 전남도와 의회 간 연립지방정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모델인 연합정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의미 있는 제안이지만 경기도와 전남도의 환경은 차이가 있어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문 임기제 도입 입법화가 완료되면 의회와 긴밀한 업무추진을 위해 정부부지사 기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풍력발전 소음피해 원인규명 촉구 건의안 채택

우승희 도의원 대표발의... 주민건강 피해 정밀조사 등 촉구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풍력발전시설 소음피해 원인 규명과 주거지와의 거리 등 설치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당 우승희 도의원(영암1)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해당지역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소음과 저주파 등의 주민 피해 정밀조사와 원인규명을 촉구하고, 풍력발전 사업 허가시 도, 시·군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하도록 명시했다. 또 민가와와의 이격거리, 소음, 전자기파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도 요구했다.

우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풍력발전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주민간 갈등과 행정

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건강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원인규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청와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가 올해 초 풍력발전단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음과 수면장애, 이명, 어지럼증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3MW 초과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사항으로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처리되고 있어 인허가 과정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도당, 추석절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창평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9월 12일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12일 오전 민족대명절 추석절을 맞아 담양읍 전통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심을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개호 도당 위원장과 최형식 담양군수, 박철홍 도의원, 김기성 담양군의회 의장 등 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재래시장을 이용합시다’는 어깨띠를 착용한 캠페인 참가자들은 이날 담양읍 재래시장을 돌며 1시간여 동안 가두 캠페인과 함께 재래시장에서 직접 제수용품과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행사를 마친 이개호 위원장은 담양군



도당은 추석을 맞아 담양읍 전통시장에서 이개호 위원장, 선출직 당원, 당직자들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캠페인을 전개했다.

창평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성덕원(대표 김순숙)을 방문, 쌀과 라면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소외계층 노인들이 따뜻

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 격려했다.

도당, '더 NEWS' 기자단 24명 선발

지역위 소식 현장취재 SNS 게재

우수 포스팅 당보 게재

전남도당 산하 각 지역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지역소식을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소개할 제1기 전남도당 '더 NEWS' 기자단 24명이 공모를 통해 선발됐다.

도당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도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정치 현장 취재 및 관련 콘텐츠를 발굴, 소개할 '더 NEWS' 기자단을 공모한 결과 김윤선(목포)·박경민(무안)·한주광(나주)씨 등 24명의 당원을 '더 NEWS' 기자단으로 선발했다.

이들 기자들은 앞으로 SNS를 통해 도당 소식을 현장취재하여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에 게재하며, 우수 포스팅에 대해 당보에 게재하고 연말에 도당 위원장의 표창장도 수여할 계획이다. 도당은 이들 기자단에 명예기자증도 발급할 계획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퇴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 순천에서 경제민주화 특강을 실시했다.

순천지역위원회(위원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지난 9월 7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당직자와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당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김 전 대표의 특강에 이어 조충훈 시장과 김 전 대표의 '자유경제론' 토크쇼가 이어졌다.

김 전 대표는 특강에서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9월 5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8일 국회 '미래포럼' 창립식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경제민주화 알리기 광복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나주·화순지역위(위원장 신정훈)는 지난 1일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토론회를 실시했다. 김 전 대표의 순천 특강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토론회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김종인 전 대표, 순천 핵심당원 워크숍 특강

“가진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 방치해선 안 돼”

‘경제민주화’란, 경제주체가 공정한 규칙아래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만드는 것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또 경제민주화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목표는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인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달 7일 오후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의 가치와 목표, 추진방법 등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열린 '전남도당 순천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연수회'에서 '경제민주화' 특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규칙 아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경제가 움직이는 시장경제 하에서는 재벌을 비롯한 가진 자들이 이겨 그들에게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해 경제민

주화가 꼭 필요하며, 이는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세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대기업이 투자하면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화 등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 문제도 결국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부를 움켜쥐고 있는 경제세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 부동산이나 증권 투자도 자산가들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저소득층의 자산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에 없다”며 “내수를 살리려면 그동안 정부가 배려하지 않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자기 능력으로 자력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정부의 많은 지원으로 크게 성장해 세계 유수의 기업과 경쟁할 능력이 생겼다”며 “이젠 그동안 정부가 배려하지 않았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능력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

가 소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돼서 감히 말씀드리면 내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며 “새로운 당 지도부가 문제가 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해결책을 제대로 밝혀 확신을 줄 때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토론회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시급하다

공공기관 직원 73.2% ‘불만족’... 특별법 개정·지원센터 설립 등 필요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을 비롯한 정주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 오후 3시부터 나주시 빚가람동 한국콘텐츠진흥원 1층 빚가람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주관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전기관 구성원의 일·생활 균형실태’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재)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백다래 책임연구원은 통해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에 업무량의 증가와 열악한 정주여건, 사회적 관계의 단절, 주말

가족 방문, 여가 활동의 감소 등으로 삶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 기관 직원 73.2%가 정주여건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야만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혁신의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상철 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대변하고 이해를 실현해나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빚가람미래교육연대 김태영 위원장은 “보



육시설의 확충과, 광주와의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사립 명문고교 설립 등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가족동반 이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했다.

나주·화순지역위 이용범 정책실장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지방세 감면 조항을 삭제해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

는 조항을 신설해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시 나상인 기획예산실장은 “최우선적으로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공영장, 육아시설 등을 갖춘 빚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설해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악취 및 교육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나주시의 계획을 밝혔다.

이 가을 순천엔 문화·역사 볼거리 ‘풍성’

클래식의 향연 순천만국제교향악 축제...15일 순천만정원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낙안민속문화축제, 팔마문화제

깊어가는 가을.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찬 순천이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순천만 정원과 클래식공연이 만나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낼 2016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 과거와 현재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낙안민속문화축제, 도심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제34회 팔마문화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원과 함께하는 클래식 향연

순천시민의 날(15일)을 맞아 15일부터 22일까지 세계적인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2016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가 열린다. 음악회는 메인음악회, 테마음악회, 초청연주회, 지역단체 연주회 등으로 꾸며진다.

개막공연으로 열리는 메인 음악회는 15일 오후 7시 순천만국가정원 주무대에서 시민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하공연으로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과 60여명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한다.

16일 오후 7시에는 국제적 명성의 이탈리아 아퀼라시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박중훈, 첼리스트 송영훈 콘서트의 환상의 하모니가, 18일 오후 7시에는 성악가이자 가수로 세계적인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폴포츠와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가 마련



련돼 있다.

마지막 공연으로 22일 오후 7시에 피아노 협주곡 ‘아리랑’과 작곡가 안익태의 한국 환상곡, 오케스트라와 연합합창단이 함께 펼치는 장엄한 무대가 펼쳐진다. 테마음악회는 요일별 특성에 맞게 진행되며 체험뮤지컬 공연인 ‘헬로 모차르트가’가 17일부터 21일까지 11시, 오후 1시 순천만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2016. 10.15 (토) ~ 10.22 (토) 오후 7시 | 순천만국가정원 (우천시, 순천문화예술회관)

낙안민속문화축제

낙안읍성에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23회 낙안민속문화축제가 열린다.

주요 행사로는 ‘2020 세계문화유산등재 낙안읍성 세계인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낙안읍성 백중놀이, 기마장군 순라의식, 한복 패션쇼, 전통음식페스티벌 등이 열린다.

한복패션쇼는 15일 고구려 창작의상, 조선시대 우리옷, 전통혼례복, 생활한복, 창작의상 등으로 진행되며 가야금병창, 국악 한마당, 전통무용단 공연이 열린다.

16일에는 낙안읍성 고유의 맛과 멋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제1회 전국사진촬영대회와 대한민국 팔씨름 천하장사 대회도 펼쳐진다.

순천의 전통과 향토음식을 각 지역에서 발굴해 진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전통음식페스티벌 등도 진행돼 과거와 현재의 즐거운 시간여행이 될 것이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순천의 10월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문화와 역사가 함께하



고 정원과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로 첫발을 내딛 순천시가 문화예술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팔마문화제’

순천 시민으로 자긍심과 화합을 위한 제22회 순천시민의 날(15일)을 맞아 순천의 정신인 ‘팔마정신 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제34회 팔마문화제가 1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문화의 거리 길놀이를 시작

으로 체험, 문화예술 공연, 경연, 전시 등이 선보인다.

체험으로는 민속공예, 서예퍼포먼스, 공공미술 시민 합동작품 만들기 등이, 공연으로는 거리공연, 아고라 공연, 경연으로 학생음악경연대회와 청소년 환경미술사생대회, 사진과 서예, 수석 전시 등이 열린다.





총선 공로당원 표창 이개호 위원장은 도당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치고 4·13총선 공로당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즐거는 시민 분향 발길 도당이 남악 중앙공원에 설치한 고 백남기 농민 분향소를 찾은 여고생들이 헌화, 분향하는 등 시민분향이 줄을 이었다.



손학규 전 대표 특강 손학규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강진아트홀에서 '강진희망'을 주제로 제255회 다산강좌 특강을 실시했다.



도 선관위 전시회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11일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오병현 도당 사무처장을 비롯한 각 당 관계자들을 초청, 선관위 직원 및 가족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금성산 자연정화 활동 나주·함순지역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지난달 24일 정도전 유배지와 금성산 일대에서 100여명의 당직자·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정화 활동을 벌였다.



노인복지시설 위문 도당은 추석을 맞아 지난달 12일 담양 성덕원을 방문, 쌀과 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소외계층 노인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 격려했다.



사무국장 연석회의 도당은 지난 8월 31일 영광지역위 사무실에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합동연설회 홍보전 화순 하니움센터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합동연설회(8.16)에서 각 후보 운동원들이 당원들에게 열린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군민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 다하는 것이 꿈”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1991년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만 39세의 나이로 제1대 영광군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래 내리 7선을 했다. 이로 인해 전국 기초의회 ‘최다선 의원’이라는 영광을 안게 됐다.

지난 7월 영광군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에 당선됐으며, 지난 9월에는 전남시·군의회회장직 회장에 당선되는 영광도 누렸다.

지방자치의 산 증인 강필구(65세) 영광군의회 의장을 만나본다.

■인터뷰=변중섭·장은영 편집위원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살려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새겨나가는데 한 톨의 밀알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국 최다선(7선) 기초의원인데 긴 세월동안 의정활동의 보람과 성과는 무엇인가요?

-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기에 기초의원에 당선돼 26년 동안 군민을 위해 봉사에 청춘을 불살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1대 영광군의회의원 선거 이후 현재까지 지역구 구석구석을 누비며 현장에서 군민들과 함께 부대끼며 내 부모 형제의 일처럼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해결해 왔던 점과 지역민들의 애경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일일이 찾아뵙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는 등 격의 없이 지내왔으며, 그동안 의정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군민들에게 ‘강필구’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목표와 꿈이 있다면?

- 저는 지금도 지방의원이라는 감투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지역에 쓰임을 받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전국 최다선의원이라는 영광을 안겨 주신 지역민 여러분이 저에게는 꿈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살려 오로지 군민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목표이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군민’이라는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전남시·군의회회장직 회장에 당선되셨는데 회장으로서 각오나 포부를 밝히신다면?

-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살려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새겨 나가는데 한 톨의 밀알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남시·군의회회장직이 참된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도내 사군이 상생하는 가운데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 등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줄곧 기초의원에만 출마하신 이유는? 다음 선거에도 출마하실건가?

-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복지 수혜를 위해서는 군의원(기초의원)만큼 이 문제의 해법에 대해 깊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신하기 위해 기

주민 신뢰도 높아 지역구 지지기반 ‘탄탄’

지방의회 전문가·지방자치 산 증인 정평

“

지역민 여러분이 저에게는 꿈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살려 오로지 군민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목표이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군민’이라는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

초의원에 출마했습니다. 폴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군 의원으로서 지역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영광군의회 제7대 의회 임기가 아직 1년 6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또한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후반기 의장으로서 다음 기초의원 선거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잘 못된 판단입니다. 현재는 지역현안 문제 등 집행기관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산적해 있어 군민의 대변자로서 묵묵히 맡은 소임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30여년간 정치인의 길을 걷는 동안 의원직 외에 따로 생업을 위해 하신 사업이 있으신가?

- 젊은 시절 양복점, 레스토랑경영 등 많은 사업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정치에 꿈을 안고 40대 초반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조그마한 모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된 사업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군민과 함께 하며 정치인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과 의 인연은 언제 어떻게?

- 이개호 의원께서 전라남도 행정부시장 시절부터 연을 맺었으나 제19대 국회의원출마 당시 선거운동을 함께 하면서 더욱더 인연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원장님께서 우리지역에 애쓰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눈빛만 마주쳐도 위원장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자산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따뜻한 정을 주고받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그리운 요즘, 정치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오늘도 내일도 좋은 관계로 가끔적 명품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후배 의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 저는 항상 후배들에게 지역구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잡다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주민과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노인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손이라도 한 번 잡아주면서 서로 소통하라. 보이지 않는 배려를 하라.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

1951년 영광군 불갑면 부춘리 출생
1964년 영광초등학교 졸업
1967년 광주동중학교 졸업
1970년 법성상업고등학교 졸업
1984년 영광청년회의소 10대 회장
1990년 영광군축협회장
1991년~2016년 영광군의회 7선
2002년 영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

한화갑 승승장구... 동교동계 ‘상전벽해(桑田碧海)’

정권교체 후 원내총무·사무총장·최고위원 등 맡으며 핵심실세 부상

권노갑의 공백으로 김종권, 정동영, 김한길 등 당내 신주류도 득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포상고 4년 후배인 권노갑 전 최고위원은 지난 1963년 평소 흠모하던 DJ캠프에 들어왔다. 당시 목포여고 영어교사로 일하던 그는 제6대 총선에 출마한 DJ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동교동 3인방 중 김옥두·한화갑은 이보다 늦은 1967년경 합류했다. 1967년 제7대 총선 후 두 사람은 비서로 등록했다.

권 전 의원은 8명의 비서 중 조직담당 엄창록씨와 함께 선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71년 대통령선거 직후 이들은 큰 시련을 겪게 된다. DJ에게 의문의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1973년엔 일본 도쿄 납치사건이 터졌다. 권 전 위원과 김옥두 전 의원 등은 유신 직후 정보기관에 연행돼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을 당했다. 권 전 의원은 당시 고문 경험 이후 수첩을 갖고 다니지 않고 집에서 중요한 전화를 걸지 않으며, 고문을 당해 만일 정치자금의 출처를 대야 할 정도가 되면 어떤 고통도 달게 받는다 등 세 가지 행동수칙을 세웠다고 한다. 그는 실제로 모진 고문 속에서도 정치자금 후원자를 실토하지 않는 등 철저히 DJ를 위해 살신성인했다. 야당 돌풍이 일었던 1985년 2·12총선 때는 출마준비를 끝내놨다가 DJ의 만류로 뜻을 접었고, 1993년 2월 DJ가 영국으로 떠나고 없는 동안 자신의 지역구를 김홍일(68) 전 의원에게 넘겨주었다.

“동교동계 중심으로 한화갑을 인정해야”

김옥두·한화갑은 1978년 1월 1일 이른바 ‘세배죄 사건’으로 감방동지가 됐다.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으로 투옥돼 이듬해 연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있던 DJ에게 새해 첫날 세배객들이 몰려왔다. 30여이 교정당구에 세배를 요청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며칠 후 김옥두·한화갑은 “다중의 힘으로 병실 문을 부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다. 당시 한화갑은 현장에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이 “왜 그랬냐”고 묻자 한 전 의원은 “혼자 징역 살면 외로울까 봐 그랬다. 어차피 정치적 이유로 구속시키려고 작정한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잡은 감옥행은 동교동계를 더욱 뭉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정권쟁취 후 혈연적 동지를 외치던 동교동계는 신·구파로 갈라져 가고 있었다. 신·구파는 분열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했다. 구파는 “한화갑이 대권병에 걸려 이렇게 됐다”고 비난했고, 신파는 “권 전 위원이 오기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파는 “다음 대선에 킹메이커로서 사명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신파는 “미래의 동교동계 중심으로 한화갑을 인정해야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갑의 갈등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었다. 한화갑은 변변한 직책을 맡아본 적이 없다가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원내총무와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에 올랐다. 1971년 대선 때 경남지역 조직담당으로, 이후에는 정책위원, 공보업무를 맡아 주로 외신기자를 만났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동교동에서 학벌 상 단연 눈에 띄었지만 DJ 바로 곁에 서지는 못했다.

김옥두 전 의원은 경호실장을 맡았고, 1985년 민주협으로 뒤늦게 합류한 한광옥 전 대표도 1988년 비서실장을 맡았지만 한 전 의원은 비서실 차장이 가장 높은 직위였다.



한화갑



양 갑의 갈등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었다.

한화갑은 변변한 직책을 맡아본 적이 없다가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원내총무와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에 올랐다.

1971년 대선 때 경남지역 조직담당으로, 이후에는 정책위원, 공보업무를 맡아 주로 외신기자를 만났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동교동에서 학벌 상 단연 눈에 띄었지만 DJ 바로 곁에 서지는 못했다.

그는 측근들에게 “나는 야당 시절 DJ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었다”면서 “내가 좋아 지근거리에서 선생님을 모실 뿐”이라고 말하곤 했다. 자신의 자서전에서 1980년 계엄고등군법회의 최후진술을 통해 “DJ와 인연을 맺은 이래 지금까지 그분 곁에서 말석을 지키고 있지만 공·사적으로 한 번도 실망해본 적이 없다. 결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가장 오랫동안 DJ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회고했다.

한화갑, 새 정권의 핵심인물로 급부상

그는 자신의 위치를 묵묵히 받아들였지만, 권 전 위원에게 일종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과거 동교동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시 외곽에 있던 집까지 갈 차비가 없어 몇 시간을 걸어갔다는 얘기를 넋두리 삼아 측근에게 말한 적이 있다. DJ가 옥살이를 하던 때였지만 이는 결국 동교동 자금을 관리한 권 전 위원에 대한 섭섭한 마음의 일단을 표현한 것이었다.

한 전 의원은 1992년 제14대 총선에 출마, 원내에 처음 진출한 뒤 1995년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한 달 가량 대의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친 한 전 의원은 당내 경선 일주일 앞두고 돌연 사



의문의 교통사고 후 열차로 권노갑 당시 비서와 총선지원 유세 강행에 나선 DJ(위). 납치사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DJ(아래).

<사진=고려대 현대정치 연구회 제공>

퇴했다. 권 전 최고위원이 도지사 후보로 자신이 아닌 중앙대 김성훈 교수(76)를 천거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1997년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한 DJ는 수도권과 호남권 시도지사 후보 물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DJ는 서울시장 후보로 조순 서울대 교수, 고건 전 총리, 경기지사 후보에는 이종찬 전 의원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DJ는 권 전 위원을 통해 조순 교수를 몇 차례 설득한 끝에 조순 서울시장이 탄생했다. 같은 과정을 거쳐 전남지사 후보도 중앙대 김성훈 교수로 결정되자 한술밥을 먹은 자신을 천거하지 않은 권 전 위원에게 은근히 섭섭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은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 독자 출마한 허경만 전 국회 부의장에게 19표차로 지고 말았다. DJ는 권노갑이 1997년 한보비리사건으로 구속되자 대선과정에 김종권(76)씨 등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했다. 정동영, 김한길 등 40대가 DJ 주변에 집중 포진해 이미지 선거를 주도했다. 대선 승리 후 DJ는 김종권 등을 중용했고 이는 신주류의 득세로 불렸다. 권 전 위원이 여전히 풀려나지 못하자 동교동계의 빈자리는 한화갑이 메울 수밖에 없었다.

한화갑은 이 때 원내총무, 총재특보단장, 사무총장 등을 거치며 화려하게 새 정권의 핵심인물로 급부상했다. 권 전 위원이 1998년 석방된 뒤 도피성 일본유학을 떠나면서 DJ 곁에서 멀어진 것과 비교해 볼 때 한 전 위원의 승승장구는 마치 ‘상전벽해’와 같은 동교동계의 변화였다.

송승환 편집위원

故 백남기 농민
추도사

공권력 남용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쌀 수입 반대’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던 보성의 백남기 농민(69)이 지난 일요일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쏜 국가폭력으로 쓰러진 지 317일 만입니다.

국가권력이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무고한 시위 참가자의 목숨을 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사고 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317일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유족에게 최소한의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과격하고 불법적인 시위가 죽음을 불러온다면 그 공권력은 정당

화될 수 있습니까?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들면 물대포를 직사하는 공권력은 정상적인 공권력입니까? 공권력의 남용을 ‘실수’로 간주하더라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들어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서민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천257조를 넘어선 반면 재벌과 기득권층의 부는 늘어나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능한 박근혜 정권에게 쌀 수입 반대를 외치며 생존권 투쟁에 나선 무고한 농민이자 우리의 이웃이었던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린 국가폭력은 왜 정당화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농민들의 정당한 생존권 보호 요구를 국가 공권력이 과잉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발생

한 일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우리 당과 농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하고 수사를 외면하다 뒤늦게 부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처사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여 공권력 남용의 진실을 규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전남도당은 모든 당원, 도민과 함께 머리 숙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그리고 관련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부디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 9. 28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논평

‘민주화의 산 증인’ 조비오 신부의 선종을 추모하며

5·18 당시 계엄군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쏟았던 ‘민주화의 산 증인’ 조비오(조몬시놀) 신부가 21일 향년 79세로 선종했다.

전남도당은 도민·당원과 함께 조 신부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아울러 그가 평생 이루고자 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과 남북통일의 유지가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고인은 1980년 5월 광주에 참상을 겪은 후 민주화·통일운동에 평생을 바쳤다.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그는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 총을 든 젊은이들에게 평화 시위를 촉구하고 총기 회수에 나섰다가 신군부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고인은 국회청문회와 증언집 등을 통해 계엄군의 야만성을 폭로하는 등 불의에는 굴하지 않았으나 약한 자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쏟았다.

갈 곳을 잃은 부랑자와 폐결핵 환자를 돌보았고, 사제 은퇴 후에는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시설인 소화 천사의 집을 열어 여생을 봉사활동에 헌신하며 청빈의 삶을 이어왔다.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그의 사회 정의·인권 향상의 정신이 시대의 햇불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거듭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2016. 9. 21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논평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개청 2주년 성과와 과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가 오는 20일 개청 2주년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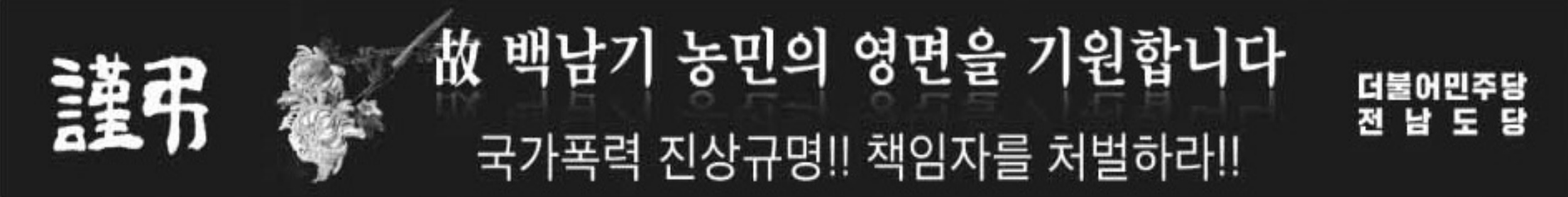
동부지역본부는 출범 이후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민원불편 해소 등에 앞장서며 실질적인 도청 제2청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다.

전남도당은 동부지역본부가 자치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도청을 가지 않고도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등 그동안 동부권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아울러 향후 과제로 위임사무를 더욱 확대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동부지역본부 관할지역은 순천·여수·광양시, 고흥·보성·구례·곡성군 등 동부권 7개 시·군으로 전남도 면적의 35%, 전체 인구(194만여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동부 권역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전진기지인 여수산단을 비롯, 광양제철 등 중화학공업지대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지난 2014년 8월 출장소(소장 4급)를 지역본부(본부장 4급)로 승격시킨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전남도는 본부 승격과 함께 임대 사용했던 조달청 건물을 매입해 회의실과 무인민원발급기, 현금입출입기, 음료수대 등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배려한 편의시설을 대거 설치해 새 단장했다. 처리가능한 민원업무도 26종에서 83종으로 늘렸다.

전남도당은 도민·당원들과 함께 지역본부 개청 2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지역민과의 소통은 물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동부권 현안사업에도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 10. 14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23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가을햇살, 좋은사람 그리고 남도음식’을 주제로 담양종합체육관 및 전남도립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통밥, 떡갈비 등 담양 대표음식을 비롯한 도내 22개 시·군의 대표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지게 됨은 물론 각종 체험과 공연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 진정한 남도의 맛과 멋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오방색의 남도음식 맛보는 남도음식주제관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담양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남도음식주제관 행사는 오방색의 식자재를 이용하여 남도 전통음식과 퓨전음식들이 전시되어 자연과 함께 하는 남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9명의 남도음식 명인에게 직접 요리 레시피를 배우고 명인의 음식을 직접 맛 볼 수 있는 시식의 기회도 제공돼 외지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관에 이어 남도 음식 피크닉홀에서는 22개 시·군의 대표 음식점들이 저마다의 특색있는 음식들을 판매하는 공간을 준비한다. 아울러 체험부스에서는 대통밥만들기, 가마솥밥짓기, 전통약과만들기 등 21종에 이르는 각종 체험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어 전년 대비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개막행사 ‘상달제’…수확의 기쁨 하늘에 전하는 행사

전통행사로 진행되는 개막행사 상달제는 색다른 볼거리로 영산강문화공원 분수대에서부터 종합체육관 행사장까지 이어지는 상달행렬 이후에 주무대에서 상달제를 진행한다.

상달제는 이낙연 지사를 비롯한 22개 시장, 군수가 전통복장을 착용하고 각 시·군에서 1년 동안 정성스레 수확한 특산물로 마련한 음식을 진설단에 올려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행사. 무사히 특산물을 거둘 수 있도록 한 감사의 마음을 하늘에 전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해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방문객은 25만명, 이 중 외지 방문객은 23만 8천명으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도당 9월 재정운영 보고

수입, 당비·보조금 외 지원금 등 5억8,243만2,085원

지출, 기본경비·정치활동비 등 8천678만7,567원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의 9월 수입은 전년도 이월 5억1,910만6,085원과 당비수입 927만8천원, 보조금 외 상급당부 지원금 404만8천원 등 5억8,243만8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비 등 기본경비로 6천107만6,717원, 조직활동비 1천242만7,600원, 그 밖의 경비 5만6,650원 등 8천678만7,567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 현재 예산 잔액은 4억4,564만4,518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재정 운영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도당은 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투명하고 알찬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김현진 차장 ☎061-287-1219

●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2016.09.01 ~ 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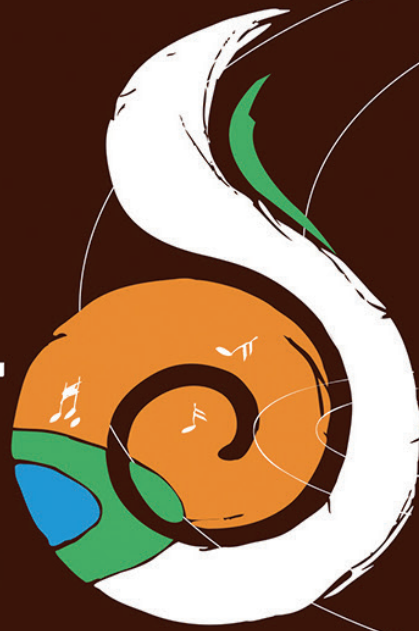
구분	과목			계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수	전 년 도 이 월			519,106,085	471,251,298	47,834,787	
	당 비			9,278,000	9,278,000	0	
	기탁금(중앙당에한함)			0	0	0	
	후 원 회 기 부 금			0	0	0	
	보조금(중앙당에한함)			0	0	0	
	차 입 금			0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0	0	0	
	입	지	보조금	상급당부	0	0	0
				하급당부	0	0	0
				계	0	0	0
원		보조금외	상급당부	4,048,000	4,048,000	0	
			하급당부	0	0	0	
			계	4,048,000	4,048,000	0	
소 계			4,048,000	4,048,000	0		
그 밖 의 수 입			0	10,328,420	0		
합 계			582,432,085	484,577,298	47,834,787		
지	선 거 비 용			0	0	0	
	선거비용외	기본경비	인 건 비	48,355,280	48,355,280	0	
			사무소 설치 운영비	12,721,437	12,721,437	0	
		정치활동비	정 책 개 발 비	13,226,600	13,226,600	0	
			조 직 활 동 비	12,427,600	12,427,600	0	
			여 성 정 치 발전비	0	0	0	
			그 밖 의 경 비	56,650	56,650	0	
		지원금	보조금	상급당부	0	0	0
				하급당부	0	0	0
				계	0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0	0	0
	하급당부			0	0	0	
	소 계			0	0	0	
합 계			86,787,567	86,787,567	0		
잔 액			446,644,518	397,787,567	47,834,787		

담양의 정체성 알리는 전국 죽순요리경연대회

담양군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기간 중에 전국 죽순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담양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올해에는 대통밥만들기, 한과만들기, 죽로차 시음회 등 담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각종 체험행사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대나무 그릇, 쟁반, 소쿠리 등 죽제품을 활용한 식자재의 전시 및 판매 코너도 마련한다. 이번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기간 중 개최되는 죽순요리경연대회는 이번이 5회째로 지난 2012년부터 개최돼 지금까지 총 172개의 전통 죽순요리와 93명의 죽순요리전문가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죽순요리대회는 전남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개최되며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총 26개팀이 본선에서 라이브요리 경연을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우수작 전시 및 시식행사 등도 다채롭게 열린다.



2016 순천만 국제 교향악축제



Suncheon Bay
International
Orchestra
Festival 2016

SIOF



2016. **10.15** (토) ~ **10.22** (토) 오후 7시 | 순천만국가정원 (우천시, 순천문화예술회관)

제22회 시민의 날 **10.15**(토) 18:00 순천만국가정원

제34회 팔마문화제 **10.14**(금) ~ **15**(토) 문화의 거리 일원

제23회 낙안민속문화축제 **10.14**(금) ~ **16**(일) 낙안읍성